"작은불서 신행 큰 도움"

'법공양' '선재들의…' '생전예수재' 등 10여종
청소년·군인·실직자 등에 포교사역할 '톡톡'

'작은 것이 유익하다!'

교계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는 소책자들이 IMF시대 허전한 불자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문서포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가지고 다니기 쉬운 손바닥만한 크기에, 명쾌한 법문과 감동을 주는 신행담이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

95년 2월 창간된 불교신행연구원의 월간 〈법공양〉은 지금까지 군부대·병원·교도소 등 쉽게 불법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 보내져 불교포교 첨병역할을 해왔다. 처음 2천부에서 현재 발간부수가 1만5천부를 넘는다. 발행에 드는 경비가 후원회원, 운영위원 등의 철저한 법보시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값지다.

올 1월 창간된 청소년불자 상담 전문 포교지 〈선재들의 속삭임〉도 32절 크기에 16면 칼라편집으로 매월 25일 1만부씩 발행해 각 사찰과 학교에 배포되고 있다. 청소년불자들의 고민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거부감없는 불교적 해결방안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같은 신행포교지와 함께 최근들어 교계 각 단체들의 홍보지도 활동소식뿐만 아니라 호원들이나 불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법문, 경전이야기,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며 소책자 형태로 변모해가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 〈삶과 생명 나누기〉, 새생명광명회 〈새생명 광명소식〉, 맑고향기롭게모임 〈맑고향기롭게〉, 길상사 〈길상〉, 제6차 염불만일회 결성추진위원회 〈염불일일기도〉등이 그러한 예.

또 조계종 포교원도 얼마전 불교전통재례인 생전예수재의 참된 뜻을 널리 알리고 신심고양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포켓사이즈의 〈생전예수재〉 자료집을 발간,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소책자들은 불교적 신앙과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대다수의 일반인들도 공감하고 새길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잠시나마 바쁜 자신의 일상들 되돌아 보게 한다.

남설주법사(호국 영축사)는 "군포교뿐 아니라 특히 방황하는 실직자들에게도 한권의 소책자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돌자와 사찰에서 소책자 법공양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자 기자〉

"군불자 해마다 줄고있다"

군승단 자료소개 92년 18만명 → 95년 16만명 → 97년 14만명

군불자의 수가 92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승단이 8일 중앙승가대 학생회 초청의 '군불교 현황과 포교방안' 주제의 특강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12월 현재 군불자는 14만6천7백여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92년 18만7천여명과 비교해 무려 3만1천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군불자 수는 95년 16만2천, 96년 15만7천여명이었다. 97년 개신교 장병은 29만6천, 천주교는 6만1천여명이다.(92년, 96년 수치는 군승단이 발표한 '97년 군승운용계획'에서 인용)

이와 관련 이희용 군승단장은 "개신교의 적극적인 군선교 전략과 군법사의 노력 부족, 군포교 자료의 부족 등이 겹쳐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또 "군목(328명)과 군법사(113명) 수의 차이가 그대로 군장병들의 종교비율로 나타난다"며 "군법사 수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교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수계를 받은 장병은 6만7천여명(92년 6만4천, 96년 7만1천명), 현재 군법사는 113명(92년 89, 96년 107명), 군법당은 319곳(95년 296, 96년 324곳)으로 파악됐다.

문화재 발전기획단 결성

정부, 전문가 24명 구성

새로운 문화재정책의 개발과 문화재행정의 발전을 위한 비공식모임 '문화재행정연구발전기획단'이 결성됐다.

문화재관리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행정사무관 및 학예연구관 등 24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지난해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문화재행정도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개선돼야 한다는 자각에서 구성됐다. 또 21세기 문화시대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 문화재관리국의 기능개편과 직원들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덕수궁 석조전 서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지며 문화재관리국의 '청'승격 문제을 비롯 매장문화재 제도의 개선과 관련 각 과별 현안, 문화재관리국의 기구정비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문화재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신회 '회장공석' 장기화될듯

신도회 제안 총무원간담회 봉축이후 가능

조계종중앙신도회의 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건회장은 3월 27일 사퇴성명 발표 이후 신도회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29일 열리는 봉축리셉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사퇴를 발표한 상태이므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토록 회칙에 규정하고 있지만, 3월 25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중앙신도회 발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회장과 함께 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한다'고 결의해 대행체제도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

중앙신도회 관할부서인 총무원 총무부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준비 관계로 중앙신도회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 놓은 상태이다. 중앙신도회가 3월 29일 제안한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못했다. 사서실장 성광스님은 9일 "간담회에 대해 종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앙신도회 회장 사퇴문제와 간담회 개최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은 초파일 봉축행사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종형 21교구신도회장(송광사, 경상대 교수)은 "자립적인 신도조직으로 육성키 위해 총무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총무원이 지금이라도 중앙신도회의 중요성을 인식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문화엑스포 인터넷 지구촌 홍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의근)는 엑스포행사 기획대행사인 MBC애드컴에 의뢰, 웹호스팅(wehosting)방식으로 독자적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이트명은 'cultureexpo.or.kr'이다. 세계인들에게 행사를 전한다는 의미로 홈페이지 등을 우편엽서 형태로 디자인했으며 영어 일어 등 2개국어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칼라그래픽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방에서도 한눈에 행사와 경주일원을 관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이트는 공연 행사 전시 엑스포뉴스 등 총 14개 방으로 되어 있으며 각방은 다시 하위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경주와 경북관광을 안내하는 방을 개설, 관광사절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안내방에는 불국사를 비롯한 사찰소개도 자세히 실렸다.



◇동국대는 2일 중앙도서관 1층에 멀티미디어실을 개원했다.

동국대 멀티미디어실 개원

종립 동국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2일 중앙도서관 1층에 멀티미디어실을 개원하고, 30대의 컴퓨터를 통한 6개 채널의 위성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 5개 방송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각종 공중파 프로그램은 우선 생방송으로 제공되며, 학습비디오 자료는 비디오 일체형 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멀티미디어실은 특히 VOD서비스로 교내방송국 제작물과 불교TV 제작물 등 이미 제작된 방송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게 된다. 송석구 총장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실습 및 대화식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토대 구축이 될 것"이라며 "멀티미디어실 개관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정보를 습득, 학문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간 '대중불교' 휴간키로

지원중단등 경영난

월간 〈대중불교〉(발행인 장상건)가 올 5월호를 끝으로 기약없는 휴간에 들어간다. 〈대중불교〉는 7일 IMF 이후 제작비 상승과 동국제강의 지원중단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휴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중불교〉 휴간결정은 지난해부터 재정난에 시달려온데다, 매달 5백만원씩을 광고료로 지원해오던 동국제강이 최근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올에 따라 더이상 경영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재단법인 대원정사의 회보 〈대원〉으로 출발해 올 4월호까지 통권 185호를 꾸준히 발행해온 〈대중불교〉는 교계유일의 시사종합지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휴간결정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중불교〉의 고명석 편집장은 "재정난으로 발간을 중단하게 돼 안타깝다"며 "가능한 계속 발간될 수 있도록 적당한 인수자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목탁소리

한 명 우 〈취재2부 기자〉

'대중불교' 살려야

월간 〈대중불교〉(발행인 장상건)가 5월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고 한다. 최근의 경제난과 특히 출판계에 불어닥친 한파를 감안한다면 〈대중불교〉의 휴간은 불교계 언론과 출판이 겪고 있는 고통속의 아픔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천만불자를 자랑하는 불교계에 잡지가 새롭게 생기지는 못할망정 15년간 계속 발행돼 오면서 교계시사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잡지가 휴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IMF한파로 인한 어려운 처지라 해도 이해하기 힘들다. 〈대중불교〉는 IMF 이전에도 적자가 계속됐고 또 적자 아닌 교계 신문·잡지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문화사업이란 본래 가시적 이득보다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신문화를 가꾸는 것이 아닌가.

지난 82년 11월 창간후부터 지금까지 한번의 결호없이 발간돼온 〈대중불교〉는 교계의 각종 현안이나 민감한 시사 문제에 대한 과감한 접근과 기획특집, 그리고 재가불교의 발전과 신행혁신을 선도하면서 불자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따라서 폐간과 다름없는 〈대중불교〉의 휴간소식은 올곧은 목소리 하나가 사라진다는 아쉬움을 더해준다.

또 현재 발간되고 있는 7~8개의 교계 잡지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불교〉의 휴간은 자칫 도미노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교계잡지 하나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불자들과 불교계의 안일한 태도이다. 그동안 〈법회〉 〈불교사상〉 등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잡지들이 몇년 발행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불교계 유일의 어린이 전문잡지였던 〈동쪽나라〉가 96년 경영 어려움으로 휴간을 발표했을 때도 〈동쪽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결국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대중불교〉를 그냥 문을 닫게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발행처인 대원정사도 인수자 물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교계에서도 어떻게든 〈대중불교〉를 살리길 바라는 여론이 높다.

뉴스 & 뉴스

불교 교과서연구위 창립

교과서연구위원회 창립대회가 18일 오후2시 조계종포교원 2층 강의실에서 거행된다. 위원장에는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 부위원장에는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과 연수국장 법경스님, 고우익 교법사단장, 임완숙 전국교사불자회장이 각각 내정됐다.

도심포교당 주지 모임

도심포교당 주지스님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3일 도심포교당 세미나에 참석한 주지스님들은 '도심포교당 주지스님 모임'을 결성하고 간사에 법경스님(포교원 연수국장)을 선임했다.

법경스님은 "년 1회 수련회 및 세미나 개최, 지역별 소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법회 및 신도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는 친목모임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에는 서울·경기지역의 21개 도심포교당 주지스님들이 참여했다.

6대 종교 언론인협 창립

종교언론인협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일영 샬롬유스호스텔에서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계등 6대종교 언론인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대회 및 심포지엄을 갖는다. 심포지엄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종교언론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병조 동국대 부총장이 발표한다.

팔만대장경 판각시연



아산각연구소(소장 안준영)와 남해문화원(원장 이동선)은 3일부터 5일까지 남해 충렬사에서 고려대장경 판각시연 및 제1회 판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판각및 인경시연, 목재채취, 판각대회가 펼쳐졌다.

불교시민단체 워크숍

불교시민단체 정책워크숍이 15일 오후 1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열린다.

워크숍에서는 손혁재 열린사회연구소 소장이 '불교계 사회화운동에 있어 종단과 제 단체의 위상과 역할 모색'을,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이 "마음과 일상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인터넷 부다피아 봉축안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각종 봉축행사가 인터넷 부다피아를 통해 안내된다. 현대불교신문사 전략정보실이 제공하는 인터넷 부다피아에서는 주요 봉축행사 개요 및 일정,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캐릭터 상품안내 등을 만날 수 있다. http://www.buddhapia.com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 복용하면 1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 난치병 지리산요양원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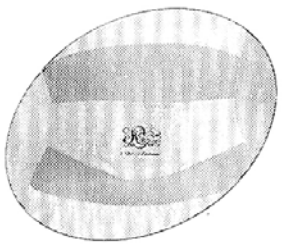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재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인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상담실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기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